

Daily News

11월 3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1월 3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중시, 두바이 쇼크 속 고용보 고서 촉각	뉴욕 증시는 지난주 발생한 두바이월드 의 채무 상환 유예 사태에도 불구하고 급락세는 가파스로 면했음. 그러나 주수감사절 휴일로 인해 연휴 분위기가 짙었던 만큼 이번주(11월30일~12월4일) 증시가 열린 후에도 두바이 쇼크의 파장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 두바이 사태의 여파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소 엇갈리고 있음. 이를 통해 글로벌 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훼손시킬만한 재료는 아니라는 분석도 맞서고 있음. 그러나 자칫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이 건드려진 만큼 안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 특히 아부다비 두바이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이 아닌 선택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따른 파장도 예상됨. 이런 가운데 이번주 발표되는 11월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온다면, 두바이 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11월 실업률 10.2% 예상	이번주 경제지표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금요일(12월4일)에 나오는 11월 고용보고서임. 전문가들은 비농업부문 고용이 전월 19만명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10만~12만5000명 줄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일자리 감소 추세는 둔화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10.2%로 예상하고 있음. 실업률은 10월에 두자릿수를 넘어선 이후 당분간 공공행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경제가 회복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아직 미약해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고용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출발점이란 점에서 특히 주목됨. 연말 쇼핑시즌의 소비 회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고용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대될 전망이다.
오바마 · 버냉키 · 플로셔 등 연설 대기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이번주 주목해야할 재료임. 중시 주변 환경이 여수선해진 시점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의 연설에는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목요일(12월3일) 일자리 컨퍼런스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대해 연설할 예정임. 대통령의 연설은 11월 고용보고서 발표 하루 전에 나온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됨. 같은날 버냉키 연준 의장은 연임 승인을 받기 위해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버냉키 의장은 미국의 경기 진단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됨. 이밖에 찰스 플로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화요일(12월1일)에 경제 전망에 대해 연설하고,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준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임.

제목	주요 내용
기름값 `달러`에 달렸다..내년 80불이상 급등할수도	<p>내년 유가가 달러 가치의 변동에 따라 배럴당 80달러 이상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지난 27일 한국석유공사에서 `2010년 국제유가 전망`을 주제로 제47차 회의를 가졌음.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내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75~80달러(두바이 기준) 내외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음. 이는 올해 평균인 61~62달러에 비해 20~30% 상승한 가격임. 중국 등 개도국이 세계 경기 회복과 석유수요 증대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임. 무엇보다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음. 협의회는 "달러화 가치 변동은 투기자금에 영향을 미쳐 석유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달러화가 급락할 경우 투기자금 유입 확대로 국제유가가 80달러 중반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음.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식경제부,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외교안보연구원, 국제금융센터, 삼성경제연구소, 글렌코어 등 각 기관의 국제석유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음.</p>
내달14일 세종시 최종안..반대 여론 무마에 총력	<p>세종시 수정에 대한 공식 사과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던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당정청은 반대 여론 무마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음. 대통령의 사과와 그 이후의 여론 그리고 정부의 안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면 세종시 수정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종안 제시 이후에도 끊임없는 갈등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임. 오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등과 만나 청와대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듣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임. 특히 대통령의 공식 사과 발표 이후 여론의 향방을 점검하는 한편, 국회 내 개정안 처리시 `표`와 직결된 박근혜 전 대표측을 설득할 묘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됨. 박 전 대표는 대통령의 공식 입장 표명 이후에도 "기존 (원안고수)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행정부처 이전을 골자로 하는 원안 추진은 물론 필요하다면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 앞서 자유선진당 의원 17명 전원 은 이 대통령의 수정방침 공식 천명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직 전원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회창 총재는 "어떤 세종시 수정 시도도 거부할 것이며 대통령은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세종시를 백지화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한 해소는커녕 불신만 키운 전파낭비"라고 강력 비난하고 이번 주부터 장외투쟁을 선포한 상태.</p>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